

사라(1학년)

제 이름은 사라 와이바입니다. 저는 지금 17살이고, 1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2083년 5월 10일에 홍수가 나서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학교에 갔었는데,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세 번째 과목을 마치고 네 번째 과목이 시작되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교실에 오셔서 너무 시끄럽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가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말만 들으셨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저 시끄럽다는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선생님께 무슨 일이냐고 여쭙보니, 선생님은 자기 일이라고 하시면서 가버리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네 입장이잖아. 그를 꾸짖고 나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잠시 후 호텔 경영학과 학생들이 나와서 시끄럽게 굴기 시작했고, 우리는 마치 또 패싸움을 한 것처럼 서로를 쳐다봤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대학 교장 선생님이 다시 나와서 소리쳤어. "큰 홍수가 오고 있으니 빨리 가!" 그러자 우리도 바로 나왔어.

나는 너무 무서웠어. 다른 형제자매들은 이미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지. 다른 반은 정문 근처에 있었거든. 나만 남은 거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와도 찾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며 교실을 나섰어. 정문에 도착했을 때 마니타, 산토시, 만싱, 수잔이 보였어. 나는 흥분해서 "빨리, 빨리!"라고 소리쳤지. 그들은 그들을 끌어냈어. 우리는 너무 무서웠어. 그들은 계속 뛰고 있었지.

그런데 다리에 도착했을 때, 우리 센터의 형제자매들은 아무도 없었고, 나, 산토시, 마니타, 이렇게 셋만 남았어. 우리가 뛰어가는데 물은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다리를 건넌지 겨우 4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강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눈으로 강물이 집, 사람, 차, 재산 등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린 것을 보았다. 그때 문득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아끼는 것들이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히 내 곁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애써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언니 가족이 샤프루에 살고 있고, 오빠도 케룽에 살고 있어서 너무 걱정되어 평평 울었던 것이다.

그때 센터의 언니들이 위로를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듣지 않고 걱정만 앞섰다. 만약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형제자매들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만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잠시 숲속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센터로 왔습니다. 홍수가 가라앉자 모두 센터로 왔습니다.

센터에 도착해서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벨이 울리자 울면서 아버지께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다들 괜찮으세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은 아무 일도 없었다. 형제자매들아, 모두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울음소리를 들으실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기 훨씬 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께서 천

사들을 보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며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루벤(1학년)

2026년 8월 20일, 저는 센터 강의실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헬리콥터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 아빠가 오셨어, 우리 아빠가 오셨어"라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센터의 한 자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인지 묻자, 제임스 형제가 다가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렸대요!"

처음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 쪽을 바라보았지만, 오직 자욱한 안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의 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올라가 내려다보니 강물은 칠흑같이 검게 보였고, 수많은 집이 휩쓸려 내려가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거대한 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물은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높은 지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동안 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니타 자매가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형제님, 남자분이 이렇게 당황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다간 뺨을 한 대 맞을 줄 아세요!"

정글 길을 따라 달리던 중, 저는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후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들을 떠올리자마자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게는 용기가 솟아났고, 덕분에 어린 자매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집과 재산이 그렇게 휩쓸려가는 것을 보며, 저는 이 홍수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해도, 그것은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오직 재물을 모으는 데 바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단 5분 만에 휩쓸려 사라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영원한 부(富)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잇은 채, 썩어 없어질 재물만을 좇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간증을 적을 수 있는 것은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엘리나(1학년)

그날 저는 여느 날처럼 학교에 갔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4교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고 계실 때, 뒤편에서 몇몇 여학생들이 "선생님,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모두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은 조금 놀라신 듯 우리에게 빨리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나섰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친구는 먼저 갔고 저도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고 강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걸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길가의 상인들이 많은 차량들을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강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며 모두에게 돌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언덕 위로 올라갔더니 우리 센터의 수녀님들과 형제들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언덕을 바라보며 "물이 불어나고 있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 언덕 아래에서 김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거대한 파도처럼 물이 천천히 제 눈앞에 밀려오고 있었어요. 집과 물건들이 물에 휩쓸려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물은 점점 더 불어나 주변의 땅과 들판을 모두 잠기게 했어요.

그때 안자나 디디가 제 손을 잡고 뛰라고 했어요. 뛰면서 "이제 죽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죽더라도 두렵지 않아."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 친구가 저를 껴안고 울면서 "엄마 아빠가 전화를 안 받아."라고 말했어요. 저는 친구를 위로하고 달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언덕을 향해 달려갔어요. 언덕으로 향하던 중, 아스미타 디디의 전화가 우리 집으로 울렸습니다. 디디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모두 안전해?"라고 물었습니다. "다들 괜찮지만, 알리나가 모든 걸 휩쓸어 갔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방은 어떻게 됐어?"라고 물었습니다. 디디는 "모든 게 휩쓸려 갔어,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진정되었고 우리는 모두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센터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와 그녀의 여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나중에 디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센터의 수녀님들이 해주신 말씀과 격려를 디디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 속에서 정말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도망칠 때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과 통화할 때는 제가 결코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흥미롭고 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의 도움으로 저는 그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날 살아 있고 건강한 것은 주님의 계획과 그분의 놀라운 역사 덕분입니다.

그날 주님께서서는 제 가족 모두를 보호해 주셨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니샤(1학년)

제 이름은 아니샤 타망입니다. 제 고향은 누와콧입니다. 2083년 10월, 제가 살고 있는 네팔에서 20년 동안 상상도 못 했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집들이 휩쓸려 갔고, 많은 친척과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큰 홍수는 영화나 TV에서나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드라월 10일 아침 9시에 닥친 홍수는 저를 몹시 두렵게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니, 제가 태어난 네팔이 이 홍수로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드라월 10일 아침에 홍수가 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홍수가 온다고 알려주자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도 재빨리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모두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모두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안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누군가는 달리다가 다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숲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홍수를 보았습니다. 저는 홍수를 바라보며 너무 무서웠습니다. 만약 홍수가 우리가 있는 숲까지 덮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언니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도망쳤던 숲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잃었다며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전화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맙소사, 부모님은 멀리 계시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울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니와 친구들과 함께 숲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니, 제 가족을, 모든 가족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모두 진정하고 다시 홍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홍수는 시작되었다가 물러갔습니다.

그날, 제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수를 직접 눈으로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집이 물에 휩쓸려 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집, 어떤 사람들의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제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분의 장막에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장막에서 저를 숨기시고 높은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비까스(2학년)

2083년 바드라 10일 수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아침, 1시간의 묵상 시간(고요한 시간)을 마치고 마을 행정 사무소에 시민권 신청을 하러 센터를 나섰습니다. 아침 분위기는 매우 고요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행정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트리술리 강이 범람하여 모든 것이 휩쓸려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트리술리 강을 통해 왔기에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 형제가 홍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본 후, 저는 곧바로 센터가 생각났습니다. "센터도 홍수에 휩쓸려 갔을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센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있었던 형제자매들이 홍수에 휩쓸려 갔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저는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친구들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헤므라니 누나께서 전화를 받으시고 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으로 피신해서 안전하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일을 마치고 그날 오후 2시쯤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모두 무사했습니다. 모두를 만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두가 안전했습니다.

믿음과 소망: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욥을 폭풍에서 구원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이 회개했듯이, 이 성읍의 사람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축복과 이전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이 성읍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만싱(2학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만싱 타망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사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살이었을 때, 제 눈으로 처음 목격한 사건입니다. 바로 홍수였습니다. 그 홍수는 नेपाल력 2083년 5월 10일 수요일, 바드라월에 발생했습니다. (영어 날짜: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오전 9시 15분

당시 저는 누와콧 비두르-2에 있는 트리부반 트리술리 고등학교 12학년 교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희는 선생님께서 칠판에 쓴 영어 수업 내용을 공책에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15분에서 9시 25분 사이였습니다.

갑자기, 문지기 아저씨가 교실 밖에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두 번이나 밖으로 나갔지만, 아저씨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수업을 시작하거나 필기를 하셨습니다.

그 후 교장 선생님이 모두에게 알려셨습니다. 보테 코시 강이 범람하기 시작했다고, 모두들 재빨리 각자의 자리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교실을 나왔는데, 제 가방은 다른 교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책을 가방에 넣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락파 형을 보자, 우리는 먼저 뛰어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뛰어가고 있을 때, 경찰은 시장의 다리 근처에서 마이크를 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리술리 시장을 보니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홍수도 지난번처럼 심각할 거라고, 아니면 더 심하면 지난번 다리까지 물이 차오를 거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뛰어와 이곳 선교센터로 뛰어 왔습니다. 우리 센터의 형제자매들도 모두 도착했습니다. 5분에서 10분 후, 우리는 기도실 옥상에 홍수로 범람한 강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장소가 홍수에 완전히 잠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다닌 대학부터 트리술리 바자르, 스톤 바자르까지 모든 것이 휩쓸려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제가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5분에서 10분 사이의 아찔한 순간 시장에서 뭐 큰일이 있겠어하고 있던 상인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뛰어 와서 제가 오늘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신학교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신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잠언 18장 10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속으로 들어가 안전하리라"라는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구원하셨는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제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아직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저를 오늘까지 살려 두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레비카(2학년)

2083년 6월 10일, 저는 센터 교실에 앉아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교실 창밖을 내다보며 헬리콥터가 왜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아래쪽에서 자매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내려가 보니 큰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라수와 곳곳에서 사람들과 집들을 휩쓸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수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센터까지 덮칠까 봐 걱정된 교회 목사님은 우리에게 서둘러 언덕 위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 보니 홍수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물소리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던 곳도 홍수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홍수가 올지도 몰라.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라고 말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2072년 지진이 났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계셨는데, 지금처럼 큰 재난이 닥치니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해외에 계셨고, 형만 네팔 카트만두에 있었습니다. 형과 함께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 내가 죽더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살아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팔은 이상숭배가 만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네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주님께 내 삶을 바치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고 네팔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 홍수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샤(2학년)

10년 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어렸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으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 말씀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홍수가 나던 날, 저는 학교에 갔고 우리 반은 네팔어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교실 밖에서 홍수가 온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들으려고 애썼지만 선생님은 아무 소리도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다시 "홍수가 온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모두 밖으로 뛰어나왔고, 모든 학생들이 "홍수가 온다!"라고 외치며 뛰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뛰었고, 길 위의 경찰들도 "홍수가 온다!"라고 방송을 하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홍수가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모두 언덕 꼭대기에 도착해서 함께 위를 올려다봤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검은 수증기가 다시 솟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보고 나서야 정말 홍수가 나겠구나 싶었죠. 그때 친구가 "위로 올라가 보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홍수가 덮쳤어요. 그리고 우리는 위로 올라가 보니 처음에는 검은 구멍 같았는데, 그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죠. 저도 사람들의 아들과 딸이 어디 있는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니타 언니가 제 뒤에 있었어요. 마니타 언니에게 곧 간다고 말하고 뛰어갔죠. 제가 선교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 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있었어요. 자매님들도 울고 있었고, 모두 숲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집으로 간다고 말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다는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셨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주님께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에는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큰 홍수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수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언젠가는 이와 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토스(2학년)

제 삶의 증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이마시).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지난번 파괴적인 홍수가 일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홍수로 인해 제 삶의 영적, 육적, 정신적 삶에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보호해주셨는지, 또한 그 사건을 통해 제가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제 삶의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8월 26일(바도월 10일) 그날 아침, 저는 캠퍼스(학교)에 조금 늦게 갔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일어나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게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리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강에서 매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구석 쪽을 바라보니 강물이 아주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고, 자연은 그 시간에 맞춰 자신의 흐름대로 흐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수업에 도착해 3교시까지 마친 뒤, 저와 만싱 형제, 그리고 다른 두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교실로 가서 약 15~16분 동안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운동장에서 선생님 세 분이 휴대폰으로 전화하며 이리저리 오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슨 싸움이 났나 보다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은 채 글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 모든 반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선생님께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큰 홍수가 밀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방에 책과 공책을 챙겨 학교를 나왔습니다. 제 옆에는 마니타와 사라 여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너는 빨리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전에도 홍수가 얼마나 많이 왔는데. 아무리 심하게 와도 다리까지만 오겠지. 아직 시간도 있으니 오늘은 강을 구경하다가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리 근처에 다다랐을 때 위쪽 강을 보니 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먼저 보내고 나는 강을 구경하다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이 '너희는 여기서 빨리빨리 가야 한다'고 하여 동생들을 서둘러 재촉하며 걸어갔습니다. 트리술리 주유소까지 오는 동안 저는 내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도로 위로 올라가 길에서 바라보니 강에서는 수증기(물보라)만 보였고, 시속 115~121km 정도의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물만 밀려왔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집 안의 물건들을 떠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집물건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곳에는 집의 재산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과 꿈, 행복까지 함께 떠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바라보는 동안 그곳에 있던 모든 밭과 경찰서 건물, 그리고 다른 집들이 떠내려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남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분명 휩쓸려 갔을 텐데' 하는 생각에 너무나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마저 휩쓸려 갔다면 나는 어떻게 살

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큰 불안과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이 "아무 일 없을 테니 기도하자"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약간의 위안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얼마 후 다시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빠" 하고 부르니, 부모님 입에서 "우리 모두 안전하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감사의 마음이 차올랐고,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2~3일이 지난 후 생각해보니, 조금씩 발전해가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네팔에서는 7~8km의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하는 데만 5~6년이 걸립니다. 베트라바티 쪽 도로는 이전 모습이 그리울 정도로 참 좋았습니다. 마을까지 1시간이면 가던 곳을 이제는 도로 때문에 하루 온종일 걸려 가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고,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구한 물건은 비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네팔에서 우리 청년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기가 참 어려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장소들도 모두 홍수에 휩쓸려 갔습니다. 게다가 제 몸에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학업을 보려 해도 학교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 겨우 11학년을 마쳤는데 이제 1년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미래의 문이 닫혀 버렸다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처럼 슬프고 절망적인 상태로 6~7일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모든 것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학교도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점차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제가 여전히 영적 삶에서 매우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였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며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며 영적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나는 그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았을까?' 떠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는지 창세기 1장 1절을 가르쳐주신 목사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홍수 때 많은 재산, 아름다움, 힘, 학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흠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람이 교만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따(2학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마니타 타망입니다. 저는 라수와 가틀랑에 살고 있으며, 스무 살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을 영접한 후 네팔에 닥친 대홍수로 인해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그 음성은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너를 덮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요 그 불꽃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네팔에 대홍수가 닥친 날은 2083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대학에 가던 날이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홍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두가 교실에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모두 무사히 도착했을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친구들은 이미 떠났고, 몇몇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홍수에 휩쓸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었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정보를 믿지 않았거나, 그 자리에 계속 있었거나, 길에서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도망칠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저처럼 교만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픔은 제 시험이 될 것입니다. 고통은 제 삶 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 삶의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수잔(2학년)

제 이름은 수잔 타망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홍수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홍수는 2082년 10일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던 날이었죠. 홍수가 닥쳐왔을 때 저는 학교 안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홍수 때문에 도망치고 있을 때, 우리 반 친구들 중 몇몇은 무슨 싸움이 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을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무슨 일인지 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나오셨지만,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잠시 후, 친구 한 명이 와서 선생님이 우리를 두고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선생님이 왜 일찍 가셨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오늘은 일찍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디라즈와 저는 평소처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라니 누나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기도탑에 올라가서 홍수가 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떤 위험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저희를 두고 가셨지만 이유도 알 수 없었지만 저를 지체하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저를 선교센터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홍수에 휩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락바(2학년)

얼마 전, 지난 Bhadra월(8~9월경) 10일에 큰 홍수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홍수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홍수가 났다고 소리쳤고, 모든 학생이 교실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다른 건 돌아보지도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만싱(Mansing) 형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집과 저희 센터에 도착했을 때, 센터에 있던 누나와 여동생들이 소리치며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누나를 보러 달려갔습니다. 거대한 홍수로 인해 강 근처에 있던 집들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기도 탑(Pray tower)으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물은 온통 검게 변해 흘러내려 오고 있었고, 강 위로는 연기 같은 것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도 강물이 계속 불어나 집어삼키고 있었기에, 우리는 센터에서 피신하여 위쪽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 강물이 줄어든 후 다시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센터로 돌아와 밥을 먹은 뒤, 저는 위층 공부하는 곳으로 올라가 기타를 치며 그 홍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만약 단 5분만 늦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저는 피신하라는 소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 후 제 마음에 '너는 지금 당장 집으로(선교센터) 가야 한다'는 생각을 넣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죽음에서 저를 구원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에 '어서 집으로 가라'는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저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섬자나A(2학년)

제 이름은 섬자나 타망입니다. 저는 지금 18년째 성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학에 다니던 중,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드릴 만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도시 사람들과 대학 캠퍼스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기도에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조용했던 곳이 순식간에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기도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전에 본 적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큰 홍수가 다가오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와 교실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으로 뛰어내렸는데, 모두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얼마 후, 대학에 간 형제자매들도 모두 모여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도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이들은 가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홍수에 죽더라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았습니 다. 홍수가 우리 마을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숲에서 모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순간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가족도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육신과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재물, 분노, 증오, 탐욕,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수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삶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는지,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었고, 어떤 이들은 재산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제 삶 안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 도시를 위해, 그리고 홍수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을 섬기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3학년)

제 이름은 제임스 타망(James Tamang)입니다. 얼마 전 시험이 끝나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위층 교실로 올라갈 시간이 되어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는데, 형의 전화기에서 한 사람이 매우 당황한 목소리로 “형, 서두르세요! 저희는 이미 위로 피신했어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저렇게 당황해하는지 궁금해서 형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형은 위쪽에서 홍수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평범한 홍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트리술리 강물이 불어나 집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던 일이 떠올라, 이번에도 아무리 심해봤자 그 정도겠거니 생각하며 교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누나가 큰 소리로 “우리 엄마, 아빠!”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위로 달려가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평소보다 50배나 불어나 있었습니다. 어찌나 엄청난 기세였는지, 눈앞에서 강가의 큰 나무가 강물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때 프라카스(Prakas) 삼촌이 우리 모두에게 언덕 위로 달려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저희 학생들과 CBT(Leader Training)에 참석하신 리더분들, 목사님들 모두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홍수 광경이 떠올랐고, 다른 형, 누나들이 “이 마을, 저 마을도 다 쓸려 내려갔겠지...”라고 말하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크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 계시록 2:9-10)

이 말씀들을 통해 저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홍수로 목숨을 잃은 분들은 이보다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게 되었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크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신 분들을 더 큰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점,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향한 계획을 이미 다 이루셨기에 먼저 데려가신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야 할 주님의 계획이 남아있기에 살려두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감사가 고개 숙여졌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데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고, 그 목적을 찾아가며 주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야겠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라즈(2학년)

2082년 아사르 24일, 홍수가 난 날.

제 이름은 디라즈 타망입니다. 저는 이 홍수 동안 제가 경험한 은혜를 여기에 적습니다.

제 마을은 라수와 지역에 있어서 트리솔리 강은 제가 오랫동안 보아온 강입니다. 그 해의 홍수는 트리솔리 강 역사상 가장 큰 홍수였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학교에 갔는데, 공부를 하던 중 학교에서 누군가 홍수가 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저는 학교에서 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검은 물살이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10분만 늦었더라면 홍수에 휩쓸렸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홍수에 빠뜨리지 않으신 이유는 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홍수는 잠시 찾아들었지만 그 여파는 컸습니다.

이 홍수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몰라 헤매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 공부 시간이 없었기에 저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저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제가 기울인 노력과 헌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그분은 제 삶과 모든 사람의 삶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실라(2학년)

제 이름은 수실라 타망입니다. 저는 지금 스무 살이고, 은총일은 2083년 5월 10일입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일과와 교제를 마치고, 공부를 시작하고, 점심을 먹고, 교복을 입고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수업 중에 헬리콥터가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다가오자 저는 언니들에게 "아빠 오셨어, 우리 아빠 오셨어!"라고 놀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험 라니 디디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모두 교실에서 뛰쳐나와 험 라니 디디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험 라니 디디의 마을에 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더 많은 물이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 위층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가지러 달려갔고, 그때 대학 자매들이 와서 몇몇은 기절하고 몇몇은 무서워서 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모두에게 멈추라고 외치며 언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며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시편 91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까 봐 너무나 두려웠지만, 나무들을 바라보며 숨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무들이 숨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왔고, 몸이 약하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깨달았던 이삭이 생각났습니다. 나 또한 이 세상의 행복이나 눈앞에 보이는 나무나 산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재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지 물었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사탄이 온갖 방해로 했고, 저는 그 방해에 못 이겨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싫어해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때문에 세 사람에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도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복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악한 자의 간계를 깨달았고, 그날 이후로 사탄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큰 폭풍이 몰아쳤는데도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의아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더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섬자나B(2학년)

오늘은 제 짧은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83년 5월 10일, 저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교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여러명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는 길에 저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센터 밖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무엇보다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자, 저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도 홍수에 끌려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이 없으면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지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있을 때 같이 산으로 올라가던 루벤형제를 통해 주님께서 제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순간 가족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다른 종류의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저는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셔서 가족 모두 무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아주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큰일이 닥쳐왔을 때에도 주님께서 제게 두려움 없는 마음을 주셨고, 슬픈 시간 속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웃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자나(2학년)

2083년 5월 10일 수요일, 학교에 가던 중 성경책을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학교에 성경책을 가져간 적이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꼭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공부하려고 성경책을 가져갔는데, 쉬는 시간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산토스오빠, 머니따언니, 이샤, 엘리나, 사라, 만싱 오빠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는 강 옆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마머따 언니가 저를 깨웠을 때는 교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머니따 언니가 "빨리 뛰어가! 홍수가 오고 있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만싱 오빠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고, 마니따 누나, 나, 산토시 형, 저 이렇게 셋만 남았어요.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뛰쳐나와 도망쳤는데, 낯은 다리 위를 걷고 있었지만 강물은 불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 달렸지만 강가 사람들은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경찰이 홍수가 온다고 경고했는데도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지붕 위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계속 달렸고, 돌 위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강물이 흙탕물처럼 탁해져 있었고,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누가 내 앞에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달렸어요. 어떻게 집에(선교센터) 도착했는지도 모르겠고, 엘리나 손을 잡고 숲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숲에 도착해서 숲 한가운데쯤 되었을 때, 정신이 조금 들었지만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갑자기 숲에 도착했는데,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발에는 슬리퍼도 없었고, 가방도 없었죠. 그때 두세 명의 형제들만 보였는데, "오빠들아, 숨이 막혀!"라고 말했더니 오빠들이 도와줬어요.

그러자 이모가 자전거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 형제자매들이 가방이랑 슬리퍼를 집에 두고 간 거예요. 집에 가니 언니들이 제가 기절했다고 말해줬어요. 그때서야 모든 걸 이해했죠.

그리고 시편 18편 4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에워싸고 멸망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나 내 하나님이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기시고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오늘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두통에 시달리다 잠들어 있었거든요. 모두들 도망쳤지만 나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걸을 수도 없었죠. 그때 주님께서 머니따 언니를 보내 나를 깨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내게 그곳에서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도망쳐서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나중에 보니 내가 다니던 학교도 휩쓸려 갔고, 내가 오던 길도 유실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도망쳤다면 나도 그 도중에 휩쓸려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삶에 대한 그분의 목적과 계획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이 내 삶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하시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 깨우신 것입니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이곳이 사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막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천사와 꿀의 땅으로 가기 위해 사막을 지나갈 때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하며 결국 그 땅을 얻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 합니다. 지금 우리는 홍수로 인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이 홍수 또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는 한 저는 이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스미파(사역실습)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따스한 햇살과 쾌적한 날씨로 시작되었죠. 사람들은 평소처럼 즐겁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인지행동치료(CBT) 훈련이 진행 중이었고, 저는 채소를 사기 위한 목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쯤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울고 소리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도시가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조금 무서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위쪽에서 홍수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쪽 마을들이 물에 휩쓸려 가고 있고, 이곳까지 물이 차올 수 있으니 대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날씨도 맑고 햇살도 좋았는데 어떻게 홍수가 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을 나와 언덕으로 달려갔고, 저도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언덕에서 내려다보니 정말 심각한 홍수가 닥쳐왔습니다. 홍수의 규모와 범위가 너무 커서 이렇게까지 클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홍수를 봤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가족 생각이 나서 걱정을 했죠. 가족들이 무사하다는 걸 알고 나니 다른 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지만, 그 홍수를 볼 때는 정말 두려웠어요.

그날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며칠 동안 뉴스를 보고 나니 정말 무서운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홍수에 휩쓸려 가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그리워하고, 수억 원짜리 재산이 단 1분 만에 날아가고, 수많은 시신들이 흩어져...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이란 대체 무엇일까? 마치 날아다니는 구름과 같구나... 사실 그때 제 삶은 매일매일 수많은 시련으로 가득했어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 같았고,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지 절실히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붙드셨는지 생각했습니다.

사실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쳤지만,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삶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저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단 한 순간도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새로운 자비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까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하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주님 없이는 제 삶이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는 주님을 위해 살며, 제 마음과 몸과 영혼과 가족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리자나(사역실습)

8월 26일(네팔력 바도 10일), 보테코시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파괴적인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홍수가 일어났을 때 저는 고향 마을에 있었습니다. 홍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놀랍고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홍수가 밀려오는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트리술리의 상태를 보니, 홍수의 규모가 정말 크고 끔찍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평생 이런 파괴적인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수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심지어 인명 피해까지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그 홍수가 난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홍수가 나던 날 제가 어디에 있었든, 지금까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와 자비 덕분이었습니다.

홍수로 물에 잠겼던 지역들을 5~6일 뒤에 가서 보니 땅이 찢겨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 소식을 들으니 어떤 이들은 사망한 사람의 장신구(금품)까지 가져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홍수에 떠내려온 가스통을 끌어다 가져가고, 죽은 사람의 장신구를 빼앗아 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인간에게 '인류애'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가족, 남편, 아내,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과 이웃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죽은 사람마저 외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산사태와 홍수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가족을 잃는 슬픔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직접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상처받은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변합니다. 한 치 앞의 일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홍수가 나던 날 저는 고향에 있었기에 목숨을 건졌지만,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홍수가 나던 날 저는 트리술리를 포함해 어느 곳에든 있을 수 있었지만, 다행히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사역실습)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이 평범했는데,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비두르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동생 스리양이 비명을 지르며 전화했습니다. "뛰어, 오빠!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겼어!" 솔레와 투프체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여동생의 울음소리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센터의 형제자매들이 대학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직접 확인하기 위해 스쿠터를 몰고 갔습니다.

거센 물살이 익숙한 길과 집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센터의 청년들이 대학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직접 확인하기 위해 스쿠터를 몰고 갔습니다. 거센 물살이 익숙한 길과 집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센터로 급히 돌아왔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 위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아래를 내려다보니 강물은 잔잔해졌지만, 이미 참혹한 피해는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거기에 있었고, 모두 너무나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울지도 못하고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산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강물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잔잔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센터의 청소년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동생과 여동생은 그날 아침 학교에 갔습니다.

통신망이 끊겨 어머니와 저는 그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세 시간 동안,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후 12시 22분, 저는 그들이 살아남을 만큼 빨리 달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도감에 휩싸여 저는 땅에 주저앉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냉혹한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자매분의 가족과 친척 열여섯 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친구들의 집과 평생 이웃으로 지내던 분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식을 기다리는 거의 세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손을 떨었습니다. 마침내 오후 12시 22분, 그분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쳐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와 그제야 숨을 고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현실이 실감 났습니다. 할머니 자매분의 가족과 친척 열여섯

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친구들의 집과 평생 이웃으로 지내던 분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그분들을 생각합니다.

가장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을 겪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날 '솔레(Sole)'를 방문할 계획이셨고, 저 또한 '트리술리(Trishuli)'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마음이 이끌려 사무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의 발길을 돌리셨으며, 제 형제자매들에게는 달릴 힘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소중한 장소들을 잃었지만, 우리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날의 일은 제 삶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숨을 쉴 수 있고,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삶은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삶이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며,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여전히 살아남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헤브라니(사역실습)

2083년 바드라 10일에 발생한 홍수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평평 울었습니다. 홍수 당시 가족들은 저와 함께 있지 못했지만,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주시던 삼촌께서(선교사님) 곁에 계셨습니다. 삼촌께서는 홍수 속에서 저희를 돌보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삼촌 덕분에 저희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삼촌께서는 아버지처럼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때 발생한 홍수는 제가 평생 본 어떤 것보다도 더 무섭고 규모가 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재산, 집, 도시, 산, 그리고 동물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가족까지 구해 주셨습니다. 오빠의 직장도 집이 물에 휩쓸려 갔지만, 주님께서 형을 홍수에서 건져내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제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기에 제 작은 소망과 기쁨까지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수는 점점 더 거세졌고, 저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믿음이 솟아올라 “저를 책임져 주신 주님께서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나와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는 동안 저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로부터 온다.”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에 닥친 홍수는 제 삶의 여러 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생각과 관념이 바뀌었습니다. 그 홍수 속에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봉사하기 전에 먼저 재산을 모아 가족을 부양하고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재산만으로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재산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재산이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홍수에 휩쓸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작고 연약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야 주님께서 제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습니다.

재산은 가정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삶은 그보다 훨씬 더 큼니다.

오늘의 삶은 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삶에 대한 책임은 오직 주님만이 지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현재와 미래를 아시며, 저 또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 덕분에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제 시간을 쏟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어떤 일이나 책임을 주시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사람을 섬기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제 생각과 욕망, 계획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비나(사역실습)

1. 미션스쿨과 다니엘 기숙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기전에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 한쌍씩 태우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 것처럼 홍수가 나기 2주전에 하나님이 삼촌(선교사님)을 통해 미리 쌀과 콩과 기름등을 넉넉히 준비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2. 더사인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다 홍수에 휩쓸려가고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예전에 삼촌(선교사님)으로부터 미션스쿨까지 걸어다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처럼 세시간 걸어내려가 다리가끊어진 샤브로베시까지 3시간을 걷고 짐라인 같은 줄을 타고 한두시간 걸어서 하루 자고, 버스를 타고 다시 다리가 끊어진 곳까지 가서 1시간을 걸어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야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안전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주세요.

머니까(2학년)

1. 홍수가 올 때 시골 마을에 있어 늦게 알았지만 신학교 친구들이 안전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가족과 교회 식구들이 모두 안전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안전과 삶의 시간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2.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싯델(1학년)

1. 홍수로 큰아버지가 휩쓸려 실종되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가족을 잃은 큰집과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2.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 ‘더사인’(한국의 추석 같은 명절)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제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머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가 되어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주세요.